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201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한민국 대표팀 출정식 및 유니폼 발표회에서 선수와 코칭스태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재웅 “우승하고 태극기 꽂겠다”

태극전사들 WBC 출정식 … 선전 다짐

류중일 감독 “대한민국 뜨겁게 만들 것”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향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류중일(삼성)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1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WBC 출정식에서 새 유니폼을 입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민(KIA), 이승엽(삼성), 김태균(한화)을 필두로 후보 선수 28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전지훈련지로 떠난 장원삼·오승환(이상 삼성), 이대호(일본 오릭스) 등은 불참했다.

4강 신화 재현에 나선 대표팀에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한다. 앞선 1·2회 대회에서 4강과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는데 공헌한 ‘좌완 트로이카’(류현진(LA)-김광현(SK)-봉중근(LG)이 한꺼번에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김진우(KIA), 주신수(신시내티) 등이 빠져 전력이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윤석민이 선발 마운드의 중심을 잡아주고 빠른 투수 교체로 박희수(SK)-정대현(롯데)-오승환(삼성)으로 이어지는 최강의 불펜진을 조기에 활용한다면 마운드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이승엽과 이대호, 김태균 등이 이끄는 타선은 앞선 대회 못지 않다는 평가다.

류중일 감독은 “지난 대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국민이 이번 WBC를 주목하고 있다. 개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 한국 특유의 선·후배 간 팀워크가 조화를 이룬다면 단계 더 진화하는 성적을 낼 것이



WBC 야구 국가대표

정식 및 유니폼 발표회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201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한민국 대표팀 출정식 및 유니폼 발표회'에서 류중일 감독이 출전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홈경기 때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가 박힌 옷을, 원정경기 때는 파란색 상의에 흰색 하의를 입는다.

한편 KBO는 상금 50%를 대표팀

에 지급함과 동시에 우승할 경우 10억원, 준우승 7억원, 4강 진출 때는 3억원을 지급한다. 또 4강 이상 성적에 한해 소집일부터 귀국일까지 FA 등록일수를 산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LA 다저스 류현진

마운드서 통역 도움

### ML 규정 변경

올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미국프로야구 데뷔를 준비하는 ‘괴물투수’ 류현진(26)이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

미국 스포츠전문 케이블채널 ESP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부터 외국인 투수가 마운드에 선 상황에서 감독이나 투수코치가 마운드에 오를 때 통역을 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고 15일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투수를 도우려는 조치로 30개 구단 구단주들은 지난주 규정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외국인 투수가 던질 때 통역이 자연스럽게 마운드에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메이저리그에서는 감

독이나 코치만 마운드에 올라 투수를 교체하고 투수 컨디션을 점검할 수 있었다.

규정변경에 따라 류현진은 경기중

마운드에서 통역의 도움으로 투수코치와 더욱 원활하게 의사로 주고받을 전망이다.

구단주들은 또 팀마다 올해 덕아웃에 들어가는 코치수를 7명으로 1명 늘렸다.

보크 규정도 업격해졌다.

오른손 투수가 원발을 들어 3루로 공을 던지는 척하다가 재빨리 몸을 돌려 1루로 공을 뿌리는 경제 동작은 앞으로 보크로 간주된다.

/연합뉴스



## “성적을 위해서라면…”

KIA 선수들 등번호 바꾸고 개명까지

야구 선수들에게 백넘버는 자신

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선수들은 분위기 전환을 위한

방법으로 백넘버 교체를 이용하기

도 한다. 올 시즌 KIA에서도 새 번

호로 십자기전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

재활중인 투수 한기주(사진)

는

98번을 달았던 외국인 투수 소

사는 자신의 두 번째 시즌을 앞두

고 58번으로 번호를 교체할 계획

이다.

한기주 52→17, 김주형 9→33, 소사 98→58번

전태현→전우업, 류재원→류은재로 이름 바꿔

올 시즌 17번을 단다. 지난해에 이

어 2년 연속 번호 이동이다.

계속된 부상으로 마음을 졸인

한기주는 지난 시즌 ‘부상 탈출’에

대한 바람을 담아 학창시절부터

사용했던 10번 대신 52번을 선택

했었다. 자신을 대표했던 10번을

버렸지만 다시 수술대에 오른 한

기주는 새해 17번을 달고 재출발

을 노린다.

파워 허터 김주형도 빵빵한 번

호로 바꿨다. 9번을 달고 있었던

김주형은 군입대 전에 사용했던

33번을 자신을 대표할 번호로 나

꼽았다.

포수 이홍구는 34번, 내야수 박

효일과 고영우는 30번과 3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는다. 외야수

박찬·최준식은 45와 57번 그리고

윤민섭에게는 52번이 주어졌다.

친정팀으로 돌아온 한대화 2군

총괄코치는 89번을 선택했다.

KIA에서 18번은 ‘우등생 폭격기’ 7번은 ‘야구 천재’를 대변하

는 번호로 영구결번으로 남아있

다.

한편 팀에서 21번을 사용하고

있는 에이스 윤석민은 WBC에서

는 28번 선수다. 선배 오승환(삼

성)이 21번을 선택하면서 윤석민

은 그동안 대표팀에서 달아왔던

28번으로 된다. 서재웅과 이영규

는 팀에서 사용하는 26번과 15번

을 그대로 사용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탁상용 칼린더 판매

KIA 타이거즈가 2013년 탁상용 선

수 칼린더를 판매한다.

칼린더에는 2013시즌 경기 일정이

담겨 있으며 선동열 감독을 비롯한

서재웅, 윤석민, 최희섭, 이범호, 김상

현 등 선수들을 월별 모델로 해 구성

했다.

칼린더는 개당 6000원으로 배송비

는 별도다. 주문은 구단 홈페이지

(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하

면 된다. (문의 : 비전코리아 1899-

1949)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경 촉”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품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 / 33,000원 / 40,000원 / 50,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